

# 전남광주 통합 첫 국비 내년 13조9천억 반영

2027년도 정부예산안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사상 최대인 820조9천 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국비 13조9천9억원이 반영됐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 이후 처음으로 공동 대응해 일궈낸 국가에 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산업과 지방 성장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전남광주에도 관련 성장동력 사업이 대 거 담겼다. AI·반도체·에너지·미래차 등을 중 심으로 지역 산업구조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 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승 인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조원(12.8 %)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총수입도 880조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천억 원(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AI·반도체 등 미래산 업을 비롯해 청년, 지방, 교육·인재,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는 전남광주 예산에도 고 스란히 반영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반영된 국비는 13조9 천9억원으로 지난해 정부안에 담긴 13조804억 원보다 8천205억원(6.3%) 늘었다.

통합 이전 광주시와 전라도가 각각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던 방식에서 벗어나 두 지역의 산업 과 자원을 연계한 공동 전략으로 대응한 첫 성 과라는 게 특별시의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농수축산업에 2조4천8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7천170억원, AI·데이터 센터·반도체·파지컬 AI 등 첨단미래산업에 1조 564억원이 반영됐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주 력산업에는 1천312억원, 문화·관광 분야에는 4 천532억원이 배정됐다.

## Today

|                      |     |
|----------------------|-----|
| 여수 세계섬박람회 프레스데이      | 5면  |
| 함께 걷는 길-정읍 ‘대장금 마실길’ | 14면 |
| KIA, 130만관중 시대 연다    | 16면 |

특별시 전년비 8천205억·6.3% 증가

AI·반도체 등 첨단미래산업 1조564억

앞서 통합 재정 인센티브 5조 별도 확정

市 “국회서 5천억 이상 추가 확보 총력”

오는 11일 민주당과 예산 협의 등 활동

첨단미래산업 분야에서는 AI데이터센터 테 스트베드 구축 688억원, 호남권 과학기술혁신지 원 231억원, 휴머노이드 기반 제조산업 MAX 전 환 45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계속사 업으로는 AX실증밸리 조성 1천151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60억원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위원회를 열고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 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2조8천500억원은 통 합지방정부지원금 일반지원 계정으로, 1조5 천억원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반 도체 지원 계정으로 출연한다. 정부는 이를 통 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 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시는 전남의 에너지·농수산· 관광 자원과 광주의 AI·미래차·문화산업 역량 을 연계해 단순한 국비 확보를 넘어 기업 투자 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최 종 예산 확정까지는 남아야 할 산이 남아 있다. 특별시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AI·반도체· SOC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천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해 최종 국비를 14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추가 확보 대상에는 AI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132억원, 국가 AI집적단지 활성화 100억 원, 파일럿형 국산 NPU 실증센터 140억원, AI 광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사업화 지원 150억 원, 고전력 반도체 모듈 실증·평가 플랫폼 5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별시는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 책협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 여야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증 역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정부안에 충 분히 담기지 못한 AI·반도체·SOC 등 핵심사업도 추가 확보해 통합특별시의 첫 국가예산을 성공적 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변은진 기자



내년 예산안 심의 ‘꼼꼼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李대통령 “의대 탈락 전남 서부권 지원책 검토”

국무회의서 “상대적 박탈감 클 것” 언급

關시장 “복지부, 의료 인프라 갖춰줘야”

市, 박항 특보 임명…지원방안 마련 착수

목포대·정치권 “부실 심사·재검토” 반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남광주 지역에서 국 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가 추천된 것 과 관련해 “목포·서부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 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형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어려운 일인데 국립의 대 위치를 순천으로 결정했다”며 “목포와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정치적 부담이 됐 을텐데 큰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정치를 해봤지만 사실 어려운 일” 이라며 “각 지역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투면 서 몇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30일까 지 시한을 지켜 결론을 내렸다”고 격려했다.

이에 민시장은 “첫 번째는 정치인들이 전남 지 역정치협력회의를 꾸려 함께해줬고 또 하나는 후속 조치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순천대 추천에 따른 목포·서부 권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 마련 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오죽하면 몇 년 동안 온 동네가 이 문제에 매달렸겠느냐” 며 “안타까움이 있으니 중앙정부 차원에서 목포 ·서부권에 지원할 만한 것이 있는지 전남광주특 별시장과 상의해서 찾아봐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민 시장은 “그(서부권) 지역은 보건 복지부에서 의료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제일 중 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도 포함해서 함께 검토 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목포·전 남 서부권 지원을 지시함에 따라 중앙정부 차 원의 의료 기반 확충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 된다.

앞서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전남국 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국립 의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건을 조건부 의결하고 교육부가 후보 대학 1곳을 추 천해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특별시는 박항 전 인수위 보건복지위원 장을 보건의료 정책특보로 임명해 경쟁에서 탈 락한 목포대와 서남권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2면에 계속

/변은진·무안=김성호 기자

## 월급 3천300만원…신안군, 시니어 의사 채용 성공

5전6기 공고골 보건소 근무자 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5전6기(공고) 만에 월급 3천300만원의 ‘시니어(은퇴) 의사’ 채 용에 성공했다. 신안은 전국 대표 의료취약지 중 한 곳이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남 군청 홈페이지에 신안군 보건소에서 근무할 시니어 의사 A(61

세)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군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차 례, 올해만 3차례 시니어 의사 채용 공고를 냈다.

당초 월급을 1천100만원으로 공고한 뒤 1천30 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자 신안군은 3천300만원까지 월급을 파격 인상했 다. 이후 6명의 시니어 의사들이 지원했고 이 중 1명이 채용됐다.

시니어 의사는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신안군 보건소에서 근무한다.

1천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현재 보건지소 16곳 가 운데 절반인 8곳이 의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일 부 보건지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역 할을 대신하고 있다.

신안군은 의료취약지는 구조적으로 의사 확보 가 어려운 만큼 시니어 의사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안=양훈 기자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에너지 주의 시대

에너지를 보다

#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 26°C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에어컨 온도 1도 ↑  
(적정온도 : 26도 유지)

월 1,955원 ↓

쿨맵시 실천하기

월 3,863원 ↓

고효율 조명 사용하고  
안쓰는 조명 끄기

월 4,292원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월 4,340원 ↓

대중교통 이용하기

월 53,621원 ↓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월 525원 ↓

세탁기,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월 1,383원 ↓

샤워시간 3분 줄이기

월 4,132원 ↓

저녁시간(5~8시)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절약하기

월 2,575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주 KGEN 한국남동발전 한국공부발전 KPMPO 한국서부발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시니어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